

주파수 할당 부당경매 철회촉구 선도투쟁 보고

2013. 7.12(금)

KT그룹 노동조합(위원장: 정운모) 500여 조합간부들은 7월 12일(금) 아침 분당 KT사옥에서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집회 후, 보신각으로 이동해 규탄집회를 연 뒤, 오후 1시 서초동 KT사옥 앞에서 11일간의 선도투쟁일정을 마무리했다.

그 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선도투쟁에 동참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언론 등 주요기관에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주파수정책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혁혁한 성과를 일궈냈다.

마무리 집회에서 정운모 위원장은 “KT그룹 노동조합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정책 기조를 지켜본 후, 긍정적 변화가 없으면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하며, “미래부와 재벌, 언론이 아무리 KT를 흔들어대도 좌우 흔들림 없이 ‘호시우행(虎視牛行)’ 자세로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간의 뜨거웠던 선도투쟁 현장을 아래와 같이 돌아본다.

- 아 래 -

■ 투쟁경과 요약

- 6월 28일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할당 경매안이 KT에만 불리한 재벌 편중 정책으로 드러나자, 정운모 위원장은 “KT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을 절체절명의 싸움이자 우리의 고객인 국민을 재벌기업의 담합과 횡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국민기업 KT그룹 노동조합의 책무” 라고 규정짓고 투쟁을 선언함.
- KT그룹 노동조합은 지난 7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불공정한 주파수할당 경매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9일부터 3박 4일간 5,000 조합원 결의대회와 500여 조합간부 선도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함
- 투쟁기간 동안 KT그룹 노동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앞으로 ‘KT그룹 노동조합 요구 서한’ 을 전달했고, 국회상임위와 각 정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주파수할당 경매 안의 빠른 개선을 촉구함.
특히 지난 7월 10일에는 새누리당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하고,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

- 동시에 500여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며 대 국민 선전전을 벌였고, 여의도·보신각·광화문 일대 집회와 거리행진은 물론, 총 7군데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주파수 경매의 불공정함을 적극 피력해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냄
- 전국의 지부 부서장과 조합원들은 시민들에 전단지를 나눠주며 이번 주파수경매 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선전전을 전개
- 한편, 선도투쟁기간 동안 조합은 투쟁명령, 성명서를 통해 내부 결집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매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외부의 관심을 적극 유도함

■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안의 문제점

- 광대역 서비스의 조기 시행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미래부 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 국민편익을 훼손하고 자원낭비를 유발
- 현 정책은 재벌과 국민기업 KT 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재벌은 밴드플랜 1, 2를 넘나들며 헐값에 입찰하고 KT는 전문학적 대금을 내고서야 낙찰받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확보 못해 퇴출 당할 수 있음.
- 금전만능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 경매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보다는 모럴해저드 조장. 반장 선거에서 재벌집 아들이 무조건 승리하는 방식
- 눈앞의 이익만 보는 근시안적 주파수 정책으로 소탐대실이 우려됨. 어렵게 확보한 세계 1위 ICT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지만, 미래부는 주파수 장사로 돈만 챙기려 함

■ KT그룹 노동조합의 요구

- 최선의 안은 ‘밴드 2에서만 3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 차선 안으로는 ‘밴드 1에서 한 번 올린 금액은 밴드 2로 이동하여 내려와도 자사가 올린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며, 오름입찰 중에는 상승분의 평균값이 인정돼야 하고, 밀봉입찰 시 최고 입찰가에 상한 금액이 정해져야 함
- 2011년 7월 KT에 할당한 900MHz 불량주파수는 즉시 클리어링 해줘야 함
- 수 차례 지적했듯이 경매절차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즉시 보완해야 함
- 주파수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재벌과 야합해 정책실패를 가져온 책임자를 즉시 처벌해야 함

■ 세부 추진 경과

날짜	주요내용	세부내용
2012.1	구) 방통위, 광개토플랜 발표	방통위는 1.8GHz KT인접대역을 포함, 70MHz폭을 통신용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하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발표
2012.12	구) 방통위,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	방통위는 1.8GHz를 광대역으로 2013.4월까지 할당계획을 마련할 것을 발표
2013.6.28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할당방안 확정	그 동안 검토한 5가지 방안 중 2가지를 경매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혼합경매방식으로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절차에 위배되며, 통신재벌의 담합을 조장해 KT그룹 30만 가족 생존권과 국민의 통신주권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불공정 안이 드러남
2013. 7. 2	KT그룹 노동조합 광화문 기자회견 개최	KT그룹 노동조합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00여 조합간부를 집결해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경매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
	투쟁명령 1호 시달	3일 과천정부청사 앞 항의집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계획
7. 3	일간지에 호소문 게재	27개 일간지에 주파수 정책을 규탄하고 대통령과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게재
	과천청사 항의집회 및 장관면담 보류	미래부, 언론보도 통해 수정불가키 밝히며, “현 경매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궤변 일관
7. 4	미래부,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국민편의를 무시하고, 재벌담합을 조장하여 결국 KT가 원하는 주파수를 못가져가게 하거나, KT가 원하는 주파수를 가져가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매방식 선언
	KT그룹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 개최	전 그룹사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
	투쟁명령 2호 및	전 조합간부 비상 대응체계 유지 및 향후 일

	3호 시달	정 공유
7. 5	각 지방본부별 지부장 회의	주파수 할당안 문제점 공유 및 전 조직 선도 투쟁 결의
	투쟁명령 4호 시달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사측 방해 사전에 차단 조치
7. 9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할당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청사 앞에서 KT그룹 노동조합 조합원 5천 대오 집결하여 주파수철회 촉구 및 장관면담 요청서 미래부에 전달 이 날 정운모 위원장은 “경쟁사와 달리 KT만 발을 묶어 뛰게 하는 경주가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느냐” 며 총력전 선언
	미래부 즉각 논평	윤종록 차관 “KT그룹 노동조합의 행보는 도 전” 편휘
	조합간부 분당 집결	500여 조합간부 선도투쟁 준비
7. 10~11	분당 출정식 후 서울시 지하철 역사 대국민 선전전 및 여의도·보신각·광화문 집회 실시	조합간부들은 매일 아침 분당본사 집회후 서 울 시내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며 대국민 선 전전을 벌였고, 여의도·보신각·광화문 일대 집 회와 거리행진은 물론, 총 7군데에서 1인 시 위를 통해 주파수 경매의 불공정함을 적극 피 력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냄. 또 10일에는 새누리당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 달하고,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달
7. 12	보신각, 광화문 이어 서초사옥서 마무리 집회 개최.	정운모 위원장 “좌우 흔들림 없이 ‘호시우 행’ 자세로 정진할 것!” 선언. “미래부와 재벌기업이 아무리 KT를 흔들어도, 동요 없이 우리의 일터를 지키겠다” 결의 KT그룹 노동조합은 앞으로 미래부 주파수정책 기조를 지켜본 후, 긍정적 변화가 없으면 더욱 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

■ 뜨거웠던 투쟁현장 **“KT그룹 30만 가족 생존권이 달렸다”**



KT만 발을 묶어
뛰라는 것이 올바른 경주입니까!
KT만 한 레인만 뛰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경주란 말입니까!
창조경제 역행하고
ICT산업 발전 저해하는
미래부는 각성하라!



이번 주파수투쟁은
KT그룹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
을 절체절명의 싸움이자,
우리의 고객인 국민을 재벌기업의
담합과 횡포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국민기업 KT그룹 노동조합의
책무이다!



▲ 정윤모 위원장은 이번 선도투쟁
기간 동안 선봉에 나서 대규모 집회
를 진두지휘하고, 국회와 새누리당
등을 직접 발로 뛰며 KT그룹 30만
가족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우리의
요구를 호소했다.